

“꽃잎 손수건 함께 만들어요”

영암군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한걸음’

월출산 국화축제 기간 ‘누리잡 체험부스’ 운영 호응



영암군장애인복지관은 월출산 국화축제 기간 중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인 ‘한걸음’이 ‘누리잡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한

걸음’은 발달장애인들의 자기 결정 및 자기 옹호 능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모임으로, 구성원 중 일부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인 ‘누리잡’에서 다양한 체험을 주1회 하고 있다. ‘누리잡’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본인들이 제작한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교육 참여의지를 높이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축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 누리잡 체험부스에서는 ‘꽃잎 물들여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구슬 팔찌도 구매할 수 있다. 부스 운영은 11월 9일 10시부터 17시까지 월출산 국화축제 행사장 내 황소국화 조형물 인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어실프지만 짧게나마 배운 기술을 관광객과 나누는 과정 자체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이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셔서 한걸음 더 세상에 내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조모임 친구들을 격려해달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제8회 장애인한마음 대축제 맞아 실시

장흥군은 지난 5일 군실내 체육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및 장애발생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군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강건강관리, 아토피, 한의학, 치매,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장흥군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혈압, 혈당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한 생활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담은 건강정보 리플렛을 배부하여 캠페인의 취지를 높였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들은 장애인 및 가족,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담양 헤림종합복지관, 광주·전남 장애인 정보활용대회서 ‘쾌거’

정보화 교육생 6명, 대상 및 재능상 수상

담양군 헤림종합복지관(관장 김금용) 정보화교육생 6명이 최근 제3회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정보활용대회에 참여하여 문서작성 능력 부분 대상(윤성호, 37세) 및 재능상(문순복, 70세), 태블릿PC 활용 정보검색 부문 재능상(박한솔, 20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다름을 넘어 가치를 만드는 밝은 디지털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3회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정보활용대회’는 광주·전남지역 5개 장애인 기관 30여명이 참여하여 ‘문서작성 능력’과 ‘태블릿 PC 활용 정보검색’ 등 총 2가지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었다. 이번 행사는 광주안과에서 후원하고,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갤럭시 탭 및 문화상품권, 무선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이 부상으로 수여되었다.



헤림종합복지관 김금용 관장은 “기관 내의 정보화 교육장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 등의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지역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인권위 “기간제교원, 근속·가족복지점수 배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받을 때 정규직과 다르게 대우받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해당 지역 교육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가 한시적으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계약을 갱신해 최대 4년까지도 임용돼 정규직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봤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는 업무의 난이도와는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판단했다. 뉴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